

■ 李대통령-여야대표 김정일 사후 대응 논의

대북 정보력 우려에 MB “이상 없다”

민화협 조문 놓고 이견... 박근혜와 1시간 독대 관심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회담 시작에 앞서 대기 중이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여야 대표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 및 조문 계획을 포함한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회담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차를 권하며 “사태가 사태인 만큼 뽕고 말씀드리려고 했다”며 “정치권에서 잘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 상황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신속하고 균형 있게 대응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대표도 “민주통합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비공개 회담은 1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김정일

사망’ 이후 논란이 된 대북 정보력 문제 및 외교 및 안보라인 개편 필요성, 조문 단과견 문제 등이 화제에 올랐다.

특히, 여야 대표는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뒤늦게 인지한 점, 사망을 전후한 시점에 전용 열차가 이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엇갈린 분석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특성 상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대화체널을 포함한 대북 정보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예기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대북 정보력 문제를 제기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이 취약하다”며 외교 및 안보라인의 전면 개편 및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각각하는 것만큼 우리 정보력이 취약하지 않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이 대북관계 정보 공유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강조한 뒤 “(인적개편) 문제는 정부에 맡겨 달라”며 구체적 답변을 유보했다.

조문 문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과 야당은 확연한 입장 차가 노출됐다.

원 공동대표는 “조의 표시는 잘된 일인데, 조문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가 필요하다”며 민족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회담장으로 향하며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중심으로 한 조문단 구성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덕룡 민화협 의장에게 야당의 입장을 잘 말하겠다”며 “(조문에 대한) 원칙이 훼손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수차례 야당이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도 이 대통령과 야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ISD 재협상을 잘 추진해달라”는 원 공동대표의 요청에 “국회가 촉구결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야 대표가 이렇게 공고히 하면 되는 만큼 국격을 따져서 신중히 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시간 가까운 회담 직후 별도의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져 ‘김정일 사망’에 따른 현안 외에도 당 체신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진·통합진보, 청와대 회담 제외 발끈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지난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대책 논의와 관련,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발끈하고 나섰다. 회담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김진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낮까지만 해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으나 오후 들어 배제된 사실을 알고 강력 반발했다. 이번 회담은 자유선진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은 구두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선진당을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자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정치행태”라며 “청와대가 국가의 중

대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민주통합당에 끌려다니며 결정을 번복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특히 청와대로부터 22일 오후에 별도 만남을 갖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예정에 없던 별도 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했으며 이날 오전에 열리는 당 5역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또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만 상대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통합진보당은 일정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청와대가 큰 세력파만 이야기하고 작은 세력파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통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아붙였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북 “이희호·현정은은 육로방문 지원”

정부, 박지원·임동원 동행 추진 난색

북한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 추진에 대해 긍정적 회신을 보내왔다.

22일 정부 및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21일 저녁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에 통지문을 보내 “현 회장의 조의 방문을 위한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 육로로 오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지문은 북측 아시아태평양경제화위위원회(아태위)가 현 회장 앞으로 보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일정을 빨리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북측은 현대그룹이나 현대아산 측

이 현 회장의 방북을 위한 별도의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적극적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 회장과 이 여사의 조문 방북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 시기는 26~27일, 또는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이 여사 및 현 회장 측과 방북 인원 규모와 시기, 경로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틀째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방북 조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회장에 대한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인 만큼 방북 규모를 필수요원으로 최소

화할 예정이다.

핵심 가족과 수행원, 이 여사가 고통인만큼 필요하면 의료진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과장급 또는 그 이상의 정부 실무진 2~3명도 연락 채널 확보와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 여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함께할 예정이다.

이 여사 측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동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22일 오후 3시5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노무현재단의 조의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년 숙원’ 방파제 3년만에 붕괴

태풍 무이파·물난리에 광주·전남 피해 막대

올해도 자연 재해는 광주·전남을 비껴 지나지 않았다.

지난 8월7일 애초 중국 내륙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가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좀더 가까이 진로를 변경해 서해안과 남해안에 진입, 광주·전남지역을 무참히 강타했다.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폭우를 동반한 순간 최대 풍속 40m/s의 강한 바람이 광주·전남지역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사망·실종 3명에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아닥친 완도, 진도, 신안, 장흥 등 서남해안 양식장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태풍 ‘무이파’는 한반도의 최서남단인 가거도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480m의 방파제 가운데 100m를 무너뜨리고 150m는 형태만 남겨놓았다. 방파제 보호용 콘크리트 구조물인 64t 짜리 테트라포드도 5000개 중 2000개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지난 1979년 착공해 30년 만인 2008년 완공된 방파제가 3년 만에 붕괴된 것이다.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케 했다.

‘무이파’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은 가거도항 방파제는 현재 응급

회고 2011

- 1 안철수 현상
- 2 '도가니' 충격
- 3 기아차 질주
- 4 영육의 5·18
- 5 야권통합
- 6 부실대학 퇴출
- 7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 8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 9 풍성한 국제행사
-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전남도는 앞서 7월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7월9~10일 이틀 동안 순천 별량면 496mm를 최고로 광양읍 427mm, 여수 읍촌면 392mm 등 전남 동부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3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6998ha, 비닐하우스 45.9ha가 침수되는 등 가히 물난리에 가까운 피해를 가져왔다.

보성군 회천면 화곡리 한 자가 인근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암자에 있던 문모(91)씨와 마모(86) 할머니 등 2명이 사망하고, 전남에는 여수시 삼암동 작은 마을 앞 농수로에서 실종됐던 이 마을 장모(71)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7월9일 하루에만 광양 357.5mm, 고흥 305.5mm 등 300mm 이상이 내렸지만 사전에 위험지구로 지정해 응급조치를 했다던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상청의 빗나간 예보도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상청은 폭우 사흘 전 전남 동부권에 하루 평균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8일에는 9일 하루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끝>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기막혀서 말이 안나올지경...

(주)남흥건설 경력사원 채용 공고문

(주)남흥건설에서 능력과 패기를 갖춘 새로운 인재를 찾습니다.

고객만족 실현과 남다른 열정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세계 속의 초일류 기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할 것입니다.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분야	응시자격	인원	비고
경력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급 이상 경력자 우대 (임원채용 가능) • 현장 해당경력 3년 이상 • 관련학과 전공자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격증 소지 필수 • 특급 및 안전관련 자격 우대 • 근무지: 전국
	건축			
	조경			
	전기			
	설비			

□ 접수

- 1) 기간: 2011년 12월 22일(목) ~ 2011년 12월 29일(목)
- 2) 방법: 당사 홈페이지 접수
 - ① 홈페이지: <http://nhcon.co.kr>
 - ②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1-85 (주)남흥건설
- 3) 제출서류 (본사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 있습니다)
 - ① 이력서(사진필): 응시분야·근거연력서·희망연봉 기재
 - ② 자기소개서
 - ③ 경력증명서
 - ④ 각종 증명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2012년 1월 중 개별통지
- 2) 2차 인성성 검사
- 3) 면접 및 신체검사 (2차 합격자에 한함)

□ 기타

- 1)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대합니다.

○ 문의처: 경영관리부 채용담당

○ 전화번호: (062) 600-2667

